

큰스님 수행한담

묘력 나오고 지혜 생겨요”



70년대 말 당시 큰스님들이 철보사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앞에서 셋째줄 왼쪽부터 故서운스님 관음스님과 故문근스님 석주스님 故구신스님.

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이런 일들이 비 일비재합니다. 우리의 풍속이야 이웃이 상을 당하면 조문을 가곤하는데 사람이 도리가 아니다싶을 정도의 일들이 그곳에서는 당연시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부터 배울 도(道)라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들어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편할수록 얼굴에 덕이 있어지니 마음을 배웁게 지닐수록 마음에 깃 그림자가 반영되어 어두운 모습이 됩니다.

시방세계 거대한 무문관... 생활이 참선 "아상버리면 우주기운 체화 모든일 성취"

아상에서 벗어나면 태평양에 물 한방울 떨어져 태평양전체와 한덩이되듯 우주 전체와 한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에서 벗어나고 집착과 결별하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 목숨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건에 한도 끝도 없이 부딪쳐 다치곤 합니다. 욕심을 내어 부딪치므로 써 쉽게 몸이 아프고 늙고 맙니다. 욕심을 내지않고 물건에 근접하지 않으면 그리 늙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면 성취가 됩니다. 한사람이 노력한 정기가 하나의 작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를 다라나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추사 김정희선생이 몇십년 글을 쓰면서 후일 점 하나 획 하나 그물에 있어서도 일평생의 공부가 다 들어가 있었으니 이를 다라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기운이 그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일컬어 다라나라고 합니다.

드물고, 청정한 것을 탁하게 쓰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자리는 자재(自在)합니다. 자재란 가고 싶으면 가고 눕고 싶으면 눕는 구속됨이 없음을 일컫는 것은 모두 자재한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찻먹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정하고 평등하고 자재하기는 어른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리다는 이유로 그 작은 속에 부처가 들은 줄은 모르고 요놈 저놈 하며 업신여긴다면 큰일입니다.

전체의 생명과 하나될 때에는 도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어 수명이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내용입니다. 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 전체의 기운과 하나되던 우주의 기운이 자기에

우리에 마음자리에든 체 상 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야로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지위가 높은 이거나 낮은 이거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평등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평등한 이 마음을 평등하게 쓰는 이가

우리는 저마다 다른 업(業)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공기 속에서는 자재함을 얻고,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나 물속에서 자재합니다. 오온(五蘊)이 모두 공해야 자재한데, 만약 공기가 눈에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부딪칠까봐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7가 36 대보전회 927-2831 팩스 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나와 경전

우다나



지운 송광사 강원 감주

91년 가을 실상사 선 수도원에서 '깨달음의 교리적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다. 평소 깨달음에 대해 정리해 보고싶던 차였기에 좋은 기회다 싶어 준비에 들어갔고, 경전과 논서, 어록을 열람하는 가운데 만난 것이 <우다나(Udana)>였다. 낯선 경전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겐 깨달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중요한 경전이 되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 경전을 통해 본다면 진리란 땅이나 하늘, 산, 바다, 나무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만 나타나며 갖가지 마음의 작용중에서도 마음의 고유한 선정이라는 장을 통해서 연기라는 진리가 나타내게 되고 이와 동시에 마음의 깨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깨달음과 모든 존재의 실상인 연기법이 불이(不二)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 한 것은 모든 불교 즉 초기불교에서부터 선종(禪宗)에 이르기까지 모든 깨달음에 대한 기술은 바로 이 깨달음의 근원적 체형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경전에서의 귀중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파자나티(pajānati: 그는 깨달다)

깨달음의 순간 설한 법열의 노래 "마음 밖에 법없고 법 밖에 마음없다"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걸가부좌하신 채 7일간 해탈의 황홀감을 즐기신 후 선전에서 일어나 초저녁, 자정, 새벽녘에 각기 심이연기법을 순관(順觀)과 역관(逆觀)을 통해 보시고 괴로움의 일어남과 없어짐의 이치를 노래하신다. 둘째, <우다나>의 계승은 깨달음의 근원적 체형의 기본구조를 보여준다. "실로 열심히 선정에 들어 있는 바라문에게 진리가 현현하게 될 때, 그 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연기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경구를 살펴보면 존재가 법으로 나타날 때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선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정에 의해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정은 깨달음의 바탕이 된다. 또 이 <우다나>는 심이연기법을 순관과 역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므로 선정의 장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가 연기법이 관조(觀照)되어 어진 것임을 말한다. 말하자면 관조와 진리가 상응할 때는 선정이 장이 되고, 이 선정의 장을 통한 관조는 제법이 연기함을 깨달은 것이 되므로 이 경전에서의 깨달음은 관조 즉 반야가 되는

가 반야(般若)의 동시행, 현재삼인칭 단수로서 반야라는 점에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반야는 실천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깨달음의 가르침을 실천을 통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사상이나 철학일 뿐이다. 경전이나 논서나 어록의 문자만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오로지 실천수행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보살의 수행은 바라밀이며, 이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와 단절에서 회복시키고 이어주는 것으로서 상호의존적인 연기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깨달음이자 동시에 중생구제이다. 따라서 깨달음이란 학습을 통해 사상이나 철학으로 전락시켜 지식화하는 교육으로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깨달음이 단순히 교육차원에서만 머문다면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불법(佛法)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기위한 승가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는 것을 이 경전은 잘 말해 주고 있다.

법구경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빛아냈었다! 나는 허상의 웃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부처님의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년 전 붓다가 들었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판차란트라

감로수라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토 비쉬누 사르마 저음 / 서수민 옮김

란트라비전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조, 조주, 임제, 남전

Advertisement for Buddhist books including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법구경', '부처님의유언', '금강경', '판차란트라', and '란트라비전'. Includes book covers and promotional text.